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불광출판사를 찾아서

'불광(佛光)'은 부처님의 대지혜 광명으로 우리 자신과 이 사회를 비춰 광명화 하는 운동이다. 인간사회의 성공과 행복·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불광운동의 이상이며 궁극적 목적이다. ***〈광덕스님의 생애와 불광 운동〉 중***

'마음 조절' 문제 세련되게 기획해 책 만들것

서울 석촌호수 근처에는 불광사(회주 지홍)가 있다. 불교대학, 봉사활동, 유치원 등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도심 사찰이다. 하지만 '불광'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훨씬 가치 있게 만드는 존재는 아마도 '불광출판사'가 아닐까. 초대 불광사 주지 광덕 스님의 문서포교 대원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을 만나봤다.

불광출판사를 찾은 것은 1월 22일이다. 석촌호수를 지나 맑은 마음으로 불광출판사에 들어가자 10명의 직원들이 '일삼매경'에 빠져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월간 불광〉 400호 마감 때문이다. 1974년 11월 창간했으니 33년 4개월 동안 발간돼 온 것이다. 불광출판사에서 '불서와의 만남, 부처님과의 만남'이라는 기조 아래 단행출판물을 만들어내면서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만들어낸 〈월간 불광〉의 존재에서 벌써, 불광출판사의 저력이 느껴진다.

불광출판사는 불서출판계의 베테랑이다. 무비 스님의 〈금강경강의〉처럼 불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불서를 많이 보유한 출판사기도 하다(〈금강경강의〉는 22쇄를 찍어냈다).

"우리는 신행·수행 서적을 주로 출판해 왔어요. 즉 공부하는 불자, 책을 보는 불자들이 읽을 만한 출판물을 주로 내왔지요. 그것이 주효해 우리 책들이 불자들 가정에 꾸준히 보급된 것 같아요."

불광출판사 사기순 편집부장의 말이다. 사 부장의 말에서 유추해 보건데, 불광출판사의 힘은 '문서포교'의 기본을 잘 지켜 온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특히 〈화두 놓고 염불하게〉나

"1974년 창간, 현재까지 230여종 책 펴내 일반인들에 읽히는 '말랑한 불서' 기획할 것"

〈위빠싸나〉 등은 각 수행법에 맞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독서로 읽히는 책들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사 부장은 1990년 불광출판사에 입사한, 출판사의 역사와 같은 인물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불교반 활동을 하면서 편집부장을 도맡아온 사 부장은 이제 출판계에서 누구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불서 전문출판인이다.

현재까지 불광출판사는 약 230여종의 책을 펴냈다. 얼핏 보면 그리 많은 종수가 아닌 듯 하지만 기존의 책을 증보판해 새롭게 찍어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수긍이 갈만하다. 안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도 가질 수 있다. 지난해 불광에서는 2006년에 비해 초판 비중을 40%나 늘렸다. '어렵다, 어렵다'하는 불교출판계에서 신간을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터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보면 꾸준히 읽히는 책들만 계속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을 펴냄으로써 불교서적의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광출판사는 현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원래 〈월간 불광〉과 도서 편찬 사업을 함께 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각각 팀을 만들어 전문화의 길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꾸준하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독자의 범주를 더 확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읽히는 말랑말랑한 불서를 기획하고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작업 중인 〈월호스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참선(가제)〉이나 〈월간 불광〉에 연재됐던 용화 스님의 〈생활 수행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펴내는 책들이다. 불교를 담되 불교가 아닌 것처럼, 육아·교육·가정·직장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인간의 '마음 조절' 문제를 세련되게 기획, 편집해서 책을 펴낸다는 것이 불광출판사의 계획이다.

변화의 물꼬는 터놓았지만 문제는 '인력'이다. 불교계의 열악한 출판 인력난 현실에는 탄탄한 기반을 자랑하는 불광출판사 역시도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다.

"좋은 인력들이 많이 유입돼 불서전문 출판인으로 커 나가야 하는데, 불심 깊고 능력 있는 이가 불교출판사에 몸담았다가도 금세 무력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겠다는 또 다른 의지 표명이다. 불광출판사는 이름처럼 '불광'의 목표가 있지 않은가. 게다가 구심점이 있는 출판사인데, 앞날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못 헤쳐나갈리 없다.

맑은 호수처럼 잔잔히, 그러나 그 호수 속 물고기들처럼 역동적으로 불교출판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불광출판사에서 앞으로 나올 책들은 어떤 형태일까, 기대하며 문을 나섰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불광출판사 대표 불서 BEST 20

불서와의 만남, 부처님과의 만남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고봉화상선요어록	통광	1993	11	서장	종고 지음, 지상 역주	1998
2	금강경강의	무비	1994	12	신도포교지침서 상·하	이중표	1996
3	금강경	각묵 역해	2001	13	아함의 중도체계	성일	1991
4	무비스님의 가려 뽑은 명구 100선	무비	2007	14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엮음, 정원규 옮김	2006
5	반야심경 강의	광덕	1980	15	위빠싸나 1·2	김열권 편저	1993
6	보현행원품 강의	광덕	1989	16	육조단경	광덕 옮김	1975
7	부처님의 생애	박경훈	1990	17	주역선해	지욱 지음, 박태섭 역주	2007
8	붓다의 호흡법 아나빠나삿띠	김열권·이승훈 옮김	2007	18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 30송	서광	2003
9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광덕	1981	19	현대인의 정신건강	이동식	1989
10	생활 수행 이야기	법상	2001	20	화두 놓고 염불하게	김지수	2000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무문관(無門關)

오현 역해, 불교시대사, 2007

장영우(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친절한 설명, 공안 명백히 이해

나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전철로 출퇴근을 한다. 다행히 번잡한 출퇴근 시간은 피할 수 있는 데다 집이 전철 종점에 가까워 학교까지 편하게 앉아 간다. 전동차 안에서는 시선을 둘 데가 마땅찮기 때문에 책이나 신문을 보거나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 그러다가 잠깐 풋잠을 자는 것도 전철 출근의 장점이다.

요즘 전동차 안에선 신문이나 잡지, 또는 책을 보는 승객이 늘었다. 젊은이들은 DMB 등으로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전철

'사족'이란 코너 통해 본칙 보충 설명 깊은 의미 쉽게 파악…자주 읽을만 해

역에 쌓여 있는 무가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새까만 가죽 장정의 두꺼운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아예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며 책을 읽는다. 그들이 읽는 책은 다름이 아니라 개신교 성경이다.

이 광경을 볼 때마다 나는 개신교의 성경처럼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불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불교에는 십만 팔천의 경전이 있다지만, 일반인이 늘 갖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읽기에는 분량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너무 어려워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한글로 번역된 경전이 많이 나오긴 했어도 일반신도에게는 여전히 난해하다. 그러니 불교를 믿고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정작 불교의 교리나 규율, 생활규칙 같은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때 틱낫한 스님의 책이 많이 읽혔다. 그리고 또 현각 스님의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들은 자신의 수행에서 얻은 체험을 쉽고 간결하게 서술한 것이라는 점과 함께 저자가 모두 외국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요컨대, 그들은 독자 대중이 어떤 글을 좋아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무문관(無門關)〉(오현 역해)이 가장 인상 깊었다. 〈무문관〉은 원래 무문혜계(無門慧開) 화상이 48개의 본칙을 가려 뽑고 평창과 게송을 붙인 책인데, 무산오현 스님이 한글로 번역하고 알기 쉽게 '사족'을 붙여 간행하였다. 오현 스님의 책이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사족'에 있다. 이제까지 번역된 〈벽암록〉이나 〈무문관〉과 달리 오현 스님은 본칙공안의 의미를 일반 독자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있다. 가령, '동산삼근(洞山三斤)' 공안에서 '마삼근'의 의미를 "삼으로 만든 세 근짜리 가사를 입고 있는 그대야말로 바로 부처일세"라고 정확하게 풀이한 것이 좋은 보기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동산 스님은 "지금 내게 묻고 있는 네 자신에게 답이 있다. 굳이 부처의 본모습을 알고 싶다면 너 자신의 참모습을 보라"고 말한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을 듣고서야 우리는 이 공안의 뜻을 대략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책은 쉽게 이해되면서도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만약 개신교의 성경이 쉬운 말로 쓰이지 않았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현 스님의 〈무문관〉은 가까이 두고 자주 읽을 만한 양서라 생각한다.

평생부자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재운이 없는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시점이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 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 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신개발품

SMD,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